



배정훈(장신대)

1. 서론²⁾

기독교인들은 구약성서를 신약성서와 통일성을 이루는 책으로 보는 반면에, 랍비 유대교는 구약성서를 신약성서와 독립된 책으로 여기면서 호칭부터

* 이 논문은 2018년 장로회신학대학교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 1) 이 논문은 2018년도 9월 15일에 구약학회와 신약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학술대회(평택대학교)에서 주제 발표한 논문을 일부 수정한 논문이다.
- 2) 국내 학자들에 의하여도 간간이 이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포괄적인 연구는 부족한 형편이다. 우택주, '구약성서의 연구방법론과 구약신학', 김영진 외, 『구약성서개론』(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4), 85-86; 이형원, '구약성서와 신약성서의 관계 연구를 위한 해석학적 제안', 『복음과 실천』(제 37집)(2006, 4), 71-103; 이경숙, '구약성서와 신약성서의 연속과 단절: 기독교와 유대교의 문화적 소통을 위하여', 『구약논단』, 제 15권 1호 (2009, 3, 31), 155-173. 베이커가 구약성서와 신약성서의 관계를 포괄적으로 연구하였다. D. L. Baker, *Two Testaments One Bible: The Theological relationship between the Old and New Testaments* (Downers Grove, Ill. : Apollos/IVP Academic, 2010). 구약학의 연구사에서 구약성서와 신약성서의 관계는 주목받지 못했다. 강성열, "한국의 구약학: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구약논단』, 제 23권 1호 (2017. 3, 31), 104-138.

히브리 성서(Hebrew Bible)라고 부른다. 그러므로 구약성서와 신약성서의 관계를 논하기 위해서는 먼저 구약성서를 신약성서와 독립된 책으로 이해하는 가능성을 받아 들여야 한다. 그래서 먼저 구약성서(또는 히브리 성서)를 정경으로 여기는 랍비 유대교와 기독교가 이 책을 어떻게 다르게 이해하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그후에 구약성서와 신약성서의 통일성을 전제한 관점에서 두 책의 관계를 논할 수 있다. 그리하여 이 글은 구약성서와 신약성서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전개하려고 한다. 1) 구약성서와 신약성서를 서로 독립된 책으로 보는 랍비 유대교와, 구약성서와 신약성서의 통일성을 전제로 기독교의 두 가지 입장을 살핀다. 2) 요한계시록에서 다니엘서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살피므로 신약성서에서 구약성서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가설을 제시한다.

2. 구약성서에 대한 서로 다른 연구

1) 랍비 유대교와 기독교의 경전으로서 구약성서의 독립성을 전제로 한 연구

구약성서와 신약성서의 관계에 대한 첫 번째 연구는 구약성서와 신약성서의 독립성을 전제로 한 연구이다. 크니림(R. Knierim)은 구약성서와 신약성서의 불연속성을 인정한다.³⁾ 레벤슨(Jon D. Levenson)은 히브리 성경(또는 구약성서)은 어느 특정한 해석 공동체의 전유물이 아니라 다양한 해석에 대하여 열린 책이라고 말한다.⁴⁾ 구약학자인 브루그만(W. Brueggemann)도 구약성서

3) 첫째, 구약성서는 유대 전승과 기독교 전승 모두가 똑같이 자신의 정경으로 주장하는 책이다. 둘째, 기독교 전통은 본질적으로 자신의 정경을 구성하는 구약성서와 신약성서를 구분한다. 셋째, 본질적인 의미에서 볼 때, 구약과 신약 사이에는 연속성과 일치만이 아니라 그 둘을 서로 나누는 불연속성과 부조화가 있다고 한다. R. Knierim, 강성열 역, 『구약 신학의 과제』(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01). 성서 해석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우택주, “해석과 해석의 힘: 종교개혁의 구호 ‘성서만으로’에 대한 성찰”, 『구약논단』 제 24권 2호 (2018. 6. 30), 144-171.

4) 그는 히브리 성경이 기독교에 의하여 재해석된 것이 유일하다면 왜 여전히 유대 전승이 남아 있을까를 묻는다. 역으로 히브리 성경이 랍비 유대교로 가는 길이 필연적이라면 기독교의 존재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를 묻는다. Eugen J. Pentiu, “Between Hebrew Bible and Old Testament Synchronic and Diachronic Modes of Interpretation”, *St. Vladimir's Theological Quarterly* 50:4 (2006), 381-96. Jon D. Levenson, *The*

안에 신약성서가 코딩(Coding) 되어있지 않고, 구약성서는 단지 기독교적인 해석을 허락하지만 요구하지는 않는다고 말한다.⁵⁾

역사적으로 유대교와 기독교는 구약성서에 대한 다른 해석의 결과로 형성되었다.⁶⁾ 기원전 200년부터 기원후 70년 사이에 발전된 다양한 종파들은 바리새파, 사두개파, 쿠파란종파, 그리고 기독교인데, 이들은 모두 구약성서에 기초한 해석을 시도한다는 면에서 넓게는 유대교에 포함된다.⁷⁾ 제2성전이 멸망되는 기원후 70년까지 존재했던 다양한 유대교 중에서 살아남은 종파는 랍비 유대교와⁸⁾ 기독교이다. 랍비 유대교나 기독교 모두 구약성서에 대한 독특한 해석의 결과의 산물이다. 계시의 내용인 모세의 토라를 강조하는 랍비 유대교와는 달리, 기독교는 계시의 형식을 강조하면서 묵시문학의 영향을 받아 승천전승의 영향아래 새 계시의 문을 열고 마침내 모세의 권위로부터 예수의 권위로 옮겨간다.⁹⁾ 승천하여 보좌 앞에서 예수가 받은 새 계시는 모세가 받은 계시보

Hebrew Bible, the Old Testament, and Historical Criticism: Jews and Christians in Biblical Studies (Louisville, KY: Westminster/John Knox Press, 1993), 16-17.

- 5) 구약성서는 다양한 목소리가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브루그만에 따르면 구약의 다양한 목소리, 모호함, 상상적인 차원이 강조될 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해석을 서술하는 새로운 방식을 발견할 수 있다. 히브리 성경은 유대교나 기독교 모두에게 하나님의 선물이다. W. Brueggemann, *Theology of the Old Testament: Testimony, Dispute, Advocacy*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7).
- 6) Lawrence H. Schiffman, *From Text to Tradition: A History of Second Temple & Rabbinic Judaism* (Hoboken, New Jersey: Ktav Publishing House, 1991), 139-156. Dan Cohn-Sherbok ed., *The Future of Jewish-Christian Dialogue* (Lewiston: The Edwin Mellen Press, 1999). W. D. Davies, *Christian Engagements with Judaism* (Harrisburg, Pennsylvania: Trinity Press International, 1999). Alan F. Segal, *Rebecca's Children: Judaism and Christianity in the Roman World*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86).
- 7) 유대교란 기원후 200년경에 고착된 랍비 유대교의 시대와는 구분되는 명칭이다. 솔로몬 성전이 멸망된 기원전 586년부터 랍비 유대교가 형성되기 전에 성서의 유산을 이어받은 다양한 종파들이 등장하였다: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세네파, 기독교, 초기 랍비 유대교. J. Andres Overman, "Judaism (Greco-Roman Period)," *Anchor Bible Dictionary* 3(1992), 1037-1054. "유대교란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다양한 이데올로기나 접근 가운데 일어나는 넓은 호칭(designation)이다. 제2성전 시대에서 유대교를 세분화하기 보다는 복합적이고 동적인 전체를 이끈 복잡한 역사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좋다." Lawrence H. Schiffman, *From Text to Tradition: A History of Second Temple & Rabbinic Judaism*, 4-5.
- 8) 랍비 유대교의 출현에 대하여는 다음을 참조하라. 사이 J. D. 코헨, 황승일 역, 『고대 유대교 역사』, (서울: 은성, 1994), 315-340.
- 9) 배정훈, "승천전승(Heavenly Ascent)의 기원과 발전", 『장신논단』 제24집 (2005), 55-78.

www.kci.go.kr

다 더 뛰어난 것이며, 역사의 정점에서 나타난 예수 사건은 구약성서를 해석하는 출발점이 되며, 신약성서 형성의 중심이 되었다. 랍비 유대교와 기독교는 모두 구약성서에 대한 서로 다른 해석의 산물이다. 랍비 유대교는 구전 토라의 전승으로 구약성서를 해석하면서 탈무드를 형성하였고,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가 모세보다 더 뛰어난 계시의 권위를 가진 자로 이해하고 예수 사건의 빛 아래 구약성서를 해석하며 신약성서를 형성한다.¹⁰⁾

넓게 보면 랍비 유대교와 기독교가 모두 유대교의 범위에 속하지만, 오늘날 유대교라고 말할 때는 랍비 유대교를 가리킨다. 랍비 유대교와 기독교는 각각 자신의 정체성을 견지한 상태에서 대화가 진행되어야 한다. 특히나 유대교 율법주의에 대한 논쟁은 바울에 관한 새 관점으로 이어졌다. 기독교가 역사적으로 반-유대교(anti-semitism)의 오점을 남기고¹¹⁾ 그것이 아우슈비츠의 비극으로 이어졌지만,¹²⁾ 기독교의 형성과정에서 기독교는 유대교를 구약성서의 다양한 해석들 중의 하나로 보지 않고 저항의 대상으로 보았으며, 특히나 유대교 율법주의에 대한 저항이 기독교의 정체성을 형성하게 된다. 아우슈비츠 사건 이후에 유대교에 대한 객관적이고 긍정적인 입장이 강화되고 있지만, 신약성서에 나오는 반유대주의(anti-semitism)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마가복음, 마태복음, 그리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나오는 유대교에게 예수의 죽음에 대한 역사적인 책임을 돌리고 있다. 요한복음은 반유

10) 묵시문학의 영향으로 기원전 2세기 이후 랍비 유대교와 기독교의 기원으로 볼 수 있는 모세의 토라와 새 계시는 정은 다음을 참조하라. 배정훈, 『정경해석방법으로 바라본 묵시문학: 예녹서와 다니엘서』 (파주: 한국학술정보, 2008), 261-276. 신약학자 중에 최근의 박정수의 책을 참조하라. 박정수, 『고대 유대교의 터무늬: 신구약 중간사와 기독교의 기원 탐구』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8).

11) anti-semitism이라는 용어는 기원후 1872년에 독일의 빌헬름 마르(Wilhelm Marr)가 만든 단어로서 유대인들과 독일인들을 구별하려는 인종차별적인 용어였다. 인종주의적인 anti-semitism과 중세 기독교 시대와 그 이전의 교부와 신약성서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anti-semitism과의 관계에 대하여 학자들 간의 견해가 다르다. 현대의 유대인에 대한 세속적인 증오심은 기독교와 고전적인 작업에 뿌리는 돈다는 견해 (James Parkes, Jules Isaac, Rosemary Radford Ruether)와 중세 후기와 현대의 간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학자들의 견해(Hannah Arendt) 등의 두 가지 견해가 있다.

12) John G. Gager, *The Origins of Anti-Semitism: Attitudes Toward Judaism in Pagan and Christian Antiquit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5). 로즈메리 루터, 장춘식 역, 『신앙과 형제 살인』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1). 사이 J. D. 코헨, 『고대 유대교 역사』, 62-67.

대주의의 원조라고 불릴 정도로 유대교를 악의 화신으로 서술하고 있지만, 사실상 공격의 대상은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기득권을 행사하는 종교 지도자들과 참 유대교를 분리하려는 시도를 읽을 수 있다.¹³⁾ 결국 기독교와 랍비 유대교 간에 나타나는 논쟁의 핵심은 유대교를 구약성서가 보여주는 종교의 연속성으로 보면서 유대교 율법주의의 존재를 부정하려는 바울에 관한 새 관점 학자들의 입장과,¹⁴⁾ 구약성서에 대한 독특한 해석의 결과가 만든 유대교 율법주의를 구약성서에 대한 다양한 해석의 하나로 보지 않고 왜곡된 것으로 보는 기독교의 입장의 차이이다. 기독교는 비록 구약성서를 해석하는 다양한 유대교중의 하나이지만 자신을 다양한 해석의 하나로 여기지 않고 예수 사건의 빛 아래에서 새롭게 해석되는 기독교적인 구약성서 해석을 유일한 해석으로 여기면서 오히려 당대에 지배적이며 경쟁적인 유대교의 율법주의에 대한 저항을 통하여 형성되었다.¹⁵⁾

2) 구약성서와 신약성서의 통일성을 전제로 한 연구

구약성서와 신약성서의 통일성을 전제로 한 구약성서와 신약성서의 관계는

-
- 13) Alan Davies, "Anti-Semitism", *The Encyclopedia of Religion 1* (New York: MacMillan Publishing Company, 1987), 323-330.
- 14) 20세기에 바울에 관한 새 관점을 통하여 유대교 율법주의에 대한 새로운 이해들이 등장하였다. 샌더스(E. P. Sanders)는 팔레스틴 유대교를 율법주의적인 종교로 이해하는 것이 잘못 되었다고 이해하면서 구약의 종교와 유대교의 종교를 모두 언약적 율법주의(Covenantal Nomism)라고 결론을 내린다. 던(J. D. G. Dunn)은 유대교가 율법주의가 아니라 민족주의였고, 바울이 문제시한 것은 유대인들의 민족주의적인 배타성이라고 주장한다. 라이트(N. T. Wright)는 이스라엘이 은혜로 주어진 이스라엘의 표지인 할례, 안식일, 음식법 등을 일종의 우위를 나타내는 증표로 사용한다고 비판하였다. E. P. Sanders, *Paul and alestinian Judaism: A Comparison of Patterns of Religion* (Minneapolis: Fortress, 1977), 543-544; *Paul, the Law, and the Jewish People* (Philadelphia: Fortress, 1983). J. D. G. Dunn, "The New Perspective on Paul", *Bulletin of the John Rylands University Library of Manchester* 65(1983): 95-122; "Works of the Law and the Curse of the Law (Galatians 3.10-14)", *New Testament Studies* 31(1985): 523-42; *Romans*. 2 vols. (Dallas: Word, 1988). N. T. Wright, *The Climax of the Covenant: Christ and the Law in Pauline Theology* (Minneapolis: Fortress, 1991), 240-243.
- 15) 바울에 관한 새 관점에 대한 비판은 다음을 참조하라. 배정훈, "유대교 율법주의 연구를 통한 바울에 관한 새 관점의 비판적 이해", 『장신논단』 제49권(2017), 147-171.

세 가지 시도로 정리할 수 있다.¹⁶⁾ 첫째는 구약성서적인 해법이다.¹⁷⁾ 이는 구약성서가 신약성서와 독립된 책이며 신학적 우선성(priority)을 가지고 있다고 전제하고, 구약성서를 신약성서의 빛 아래 해석하기 전에 구약성서가 스스로 말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방법은 구약성서의 완전한 독립을 주장하는 유대교처럼 신약성서를 완전히 무시하지는 않지만, 신약성서 없이 기독교가 불완전하다고 여기면서도 구약성서가 신약성서의 빛 아래에서 해석된다고 하는 전제를 충분히 받아들이지 않는 단점이 있다.¹⁸⁾ 구약성서적인 해법이 답이 될 수는 없지만 구약성서의 역사적 우선성이 중요시 여기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둘째는, 신약성서적인 해법이다.¹⁹⁾ 이 방법에 따르면, 구약성서가 가지고 있는 민족적이고 율법적인 관심은 신약성서에 있는 은혜와 그리스도 안에서의 약속과 같은 관심과 대조를 이루기에 구약성서는 신약성서의 전제(presupposition)일 뿐이며 실패한 역사(miscarriage)라는 것이다. 기독교인들에게 신약성서만 중요하고, 구약성서가 기독교인들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오직 신약성서와 관련시켰을 때 만이라는 것이다.²⁰⁾ 신약성서적인 해법은 구약성서를 신약성서에 비교하여 이차적인 것으로 보거나 나아가서 부적절한 것으로 보는 단점이 있다. 셋째로, 구약성서와 신약성서의 통일성을 전제한 성서적인(biblical) 해법이다.²¹⁾ 이 해법에도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 이 방법을 위

-
- 16) 구약성서와 신약성서의 통일성을 전제 한 연구는 베이커의 연구를 주로 따르고 있다. D. L. Baker, 364-372.
- 17) 대표적인 학자로 Arnold A. Van Ruler, Kornelis H. Miskotte, 그리고 미국 학자로서 James Barr가 있다.
- 18) 제임스 바이는 말한다. 초대교회는 구약성서의 권위를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다. 오히려 문제는 그리스도를 정 의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가 구약성서의 의미의 열쇠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구약성서가 그리스 도에 대하여 어떻게 증거하는지를 살펴야 한다. 그러나 바야에게 구약성서의 우선성이 곧 구약성서가 신약성서 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구약성서와 신약성서의 중요성은 같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James Barr, *Old and New Interpretation: A study of the Two Testaments* (London, 1966), 139-148. D. L. Baker, 147-148.
- 19) 대표적인 학자로서 Rudolf Bultman, F. Baumgärtel 등이 있다.
- 20) Rudolf Bultman, "Significance of the Old Testament for the Christian Faith," *The Old Testament and the Christian Faith*, 8-35.
- 21) 대표적인 학자들은 Wilhelm Vischer, Von Rad, C. Vriezen, H. H. Rowley, 그리고 C. H. Dodd 등이 있다. D. L. Baker, 209-359.

하여 구약성서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의 빛 아래 해석됨으로 성서의 통일성을 추구하되, 구약성서의 독립성을 무시하지 않아야 한다. 이는 그리스도중심적인(Christo-centric) 해석이 아니라 하나님-중심적인(Theo-centric) 해법을 추구하여 신약의 시대와 구약의 시대에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를 찾는다. 구약성서와 신약성서가 각각의 독립성으로 인한 불연속성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안에서 구약성서와 신약성서의 통일성을 전제함으로 연속성을 찾은 것이다. 성서적 해법중의 하나인 유형론(typology)은²²⁾ 신약성서에서 구약성서를 사용하는 해석 방법으로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전제가 있다.²³⁾ 1)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로서 변하지 않는 성품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인도하신다. 2) 중요한 사건들, 제도들, 사람들과 관련된 역사적 패턴(pattern)은 신학적으로 후기의 유사한 패턴을 예표한다(foreshadow). 3) 최종적인 역사적인 성취는 이전의 상응하는 요소(counter part)를 넘어서서 더 긍정적인 것으로 대체된다. 유형론은 주석방법이나 해석이 아니라,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활동의 다른 부분들 사이의 역사적이고 신학적인 상응(correspondence)에 대한 연구를 통해 서로 다른 사건을 연결하는 신학적 작업이다. 유형론은 구약성서와 신약성서의 근본적인 유추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일관성 있는 역사를 가리킨다. 유형론의 예는 다음과 같다: 홍수 (벧전 3:20-21); 출애굽 (고전 10장); 노아와 욥 (겔 14:14, 20); 모세 (히 3:2); 다윗 (왕상 3:14; 15:3, 11); 발람 (벧후 2:15; 유다 11; 계 2:14); 여로보암(왕상 15:26, 34; 16:2-3, 19, 26, 31); 제도 (유월절과 성만찬); 성전과 교회. 유형론

22) 유형(typos)이라는 단어는 자국, 표시(요 20:25), 형상, 우상(행 7:43), 또는 편지(행 23:25)로 사용된다. 또한 이 단어를 지상의 모형과 그림자와 대비되는 비교되는 하늘의 원형(행 7:44; 히 8:5)이다. 고펠트에 따르면 유형론이라는 뜻을 담은 성경의 예로서 로마서 5:14와 고전 10:6을 제시한다. "바울은 구약의 사건들이 종말론적인 구원 사건을 가리키도록 해석학적으로 보여주기 위하여 typos 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이 두 번의 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 사건을 예표하는 용어로 사용한 것이 구약의 유형론적인 연구의 모델이 된다고 강조한다. Leonhard Goppelt, *Typos: The Typological Interpretation of the Old Testament in the New* (Eugene, Oregon: Wipf and Stock Publishers, 1982), 253.

23) Kenneth Berding eds, *New Testament Use of the Old Testament* (Grand Rapids: Zondervan, 2008), 18-22.

이 구약성서와 신약성서의 관계를 밝히는 중요한 도구이지만, 요한계시록에서는 유형론보다는 더 폭 넓게 일반적인 구약성서와 신약성서의 관계가 나타난다.²⁴⁾

3. 신약성서에 나타난 구약성서: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다니엘서 연구

1) 신약성서에서 구약성서의 사용

신약성서 기자들은 예수의 삶과 사역이 곧 구약성서의 성취라고 이해한다(요 5:39-40; 눅 24:26-27). 복음서 기자들은 인용된 구약성서를 통하여 구약의 사건이 예수를 통하여 성취되었음을 보여준다. 예수의 출생(사 7:14=마 1:23; 미 5:2=마 2:6), 이집트로 이주(호 11:1=마 2:15), 헤롯에 의한 무고한 아이들의 학살(렘 31:15=마 2:18), 나사렛에서 예수의 성장(마 2:23과 비교), 비유들(사 6:9-10; 시 78:2=마 13:14-15, 35), 예루살렘 입성(스 9:9=마 21:5), 성전정화(사 56:7; 시 69:9=마 21:13), 십자가 주위의 사건들(요 19:24, 28, 36-37).²⁵⁾ 바울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성경의 성취로 이해한다:²⁶⁾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고전 15:3-4). 바울이 구약성서를 인용한 신약성서는 주로 갈라디아서, 로마서, 그리고 고린도 전후서이다. 그는 당대의 유대교적인 해석방법인 문자적 접근, 미드라쉬적 접근, 페쇄르적인 접근, 그리고 유형론적인 접근(롬 5:12-21; 고전 15:20-22; 갈 3:10-12; 고전 10:1-11)을 사용하여 구약성서를 해석하면서도 기독교의 독특성을 유지한다. 이와 같은 신약성서의 구약성서 인용이 문자적인 의미와 원래 문맥에 있어서 반드시 일치하는지에 관해 많은 논쟁이 있어왔다.²⁷⁾ 유대학자들

24) D. L. Baker, 239-270.

25) David S. Dockery, 23-34.

26) Steve Moyise, *The Old Testament in the New: An Introduction* (London: Bloomsbury, 2015), 1-2.

27) Richard Longenecker, *Biblical Exegesis in the Apostolic Period* (Grand Rapids: Eerdmans, 1975).

은 종종 신약성서가 구약의 문맥을 무시하였으며, 히브리 본문보다는 칠십인역에 의존한다고 비판하였다.²⁸⁾ 계몽주의 시대 이후에도 신약성서가 구약성서를 잘못 인용하였다고 강조하는 학자들이 많았다. 이러한 견해에 대항하여 구약성서와 신약성서의 연속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유형론이 발전하기도 하였다.

최근에 신약성서에 인용된 구약성서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²⁹⁾ 이 연구에 대하여 제기되는 중요한 질문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신약성서의 저자들은 구약성서의 문맥(context)을 얼마나 고려하고 있는가? 둘째, 충만한 의미(sensus plenior)는 구약성서의 신약성서 사용을 설명하는 적절한 방법인가? 셋째, 신약성서에서의 구약성서 인용은 구약성서에 대한 주석학적인 모델이 될 수 있는가?³⁰⁾

이 내용들을 설명하기 위하여 신약성서에 인용된 구약성서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신약성서에서의 구약성서의 말씀이 성취되었다고 할 때 중요한 두 가지 요소는 구약성서의 권위와, 구약성서의 성취로서의 신약성서의 말씀이다. 그런데 구약성서에서 나타나는 말씀의 성취와 신약성서에서 나타나는 말씀의 성취는 서로 다른 모습을 취한다.³¹⁾ 예를 들어 이사야 40-55장의 저자

Kenneth Berding, eds, *Three Views on the New Testament Use of the Old Testament*.

- 28) 이사야 7장 14절에서 아들은 문맹상 예언자의 아들이다. 칠십인역은 여자라는 뜻의 히브리어 알마(almâ)를 처녀라는 뜻의 파르테노스(παρθένος)로 번역하였다. 마태복음의 저자는 칠십인인역을 증거 본문으로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말한다. 초대 교회에서는 원래 본문이 처녀였는데 유대인들이 여자로 바꾸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Steve Moyise, *The Old Testament in the New*, 3.
- 29) 이 분야의 선구자적인 학자들은 다음 세 학자들이다. C. H. Dodd, *The Old Testament in the New* (Philadelphia: Fortress, 1963). Barnaba Lindars, *New Testament Apologetic* (London: SCM Press, 1961). Donald Juel, *Messianic Exegesis: Christological Interpretation of the Old Testament in Early Christianity*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8). Richard Longenecker, *Biblical Exegesis in the Apostolic Period* (Grand Rapids: Eerdmans, 1975). 최근에 이 분야에 관한 연구서들은 다음과 같다. Kenneth Berding, eds, *Three Views on the New Testament Use of the Old Testament*. Craig A. Evans and James A. Sanders eds, *Early Christian Interpretation of the Scripture of Israel: Investigation and Proposals* (JSNTS 148; Sheffield: Sheffield Press, 1997). Stanley E. Porter ed, *Hearing the Old Testament in the New Testament* (Grand Rapids: Eerdmans, 2006).
- 30) Kenneth Berding, eds, *Three Views on the New Testament Use of the Old Testament*, 7-41.
- 31) 구약성서에 나타난 구약성서의 인용에 대하여 다음을 참조하라. A. Carson and H. G. M. Williamson, *It is*

는 자신이 살고 있는 시대가 이사야 1-39장에 등장하는 심판과 회복의 예언이 성취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믿었다. 그래서 심판과 회복이라는 말씀(예언)의 권위를 기원전 8세기 이사야에게 돌리고, 이사야 40-55장의 시대에 그 예언이 성취되어가고 있다고 고백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기원전 6세기의 이사야 40-55장은 전적으로 기원전 8세기의 이사야 1-39장의 권위에 종속된 것이다.³²⁾

그러나 신약성서에 나타난 구약성서의 예언과 성취는 여기에서 좀 더 나아가 본다. 신약성서에서의 구약성서의 해석은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 첫째는, 신약성서를 구약성서의 예언의 성취로 이해한다. 그런 의미에서 신약성서에서 구약성서는 폐기되지 않고 완성되는 것이다. 둘째로, 구약성서의 성취로 이해되는 신약성서의 계시는 다시금 구약성서의 계시를 뛰어넘는 새로운 계시로서의 권위를 갖게 됨으로 구약성서의 권위에 더 이상 종속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계시로서의 구약성서의 권위와 새로운 계시로서의 신약성서의 긴장은 학계에서 계속 논란이 되어 왔다. 구약성서의 권위만을 강조하여 신약성서를 구약성서의 성취로만 이해하면, 신약성서의 계시는 구약성서의 계시에 종속되는 결과가 된다. 신약성서가 구약성서의 계시를 벗어나서 새 계시로만 존재한다면 기독교는 구약성서가 없는 신흥종교가 되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구약성서와 신약성서의 관계는 구약성서의 권위를 인정하여 신약성서를 구약성서의 성취로 이해하는 연속성의 관계와 신약성서가 구약성서와는 다른 새 계시로서 구약성서와 불연속성의 관계임을 조화롭게 강조해야 한다.

신약성서 저자들은 형식적으로는 신약성서가 구약성서의 성취라고 말하면서도 신약성서가 구약성서의 권위를 넘어선 새로운 계시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해석학적인 전제로부터 이루어진다. 새 계시 논쟁은 역사적인 예수 안에서 완성되었지만, 구

Written: Scripture Citing Scripture: Essays in Hour of Barnabas Lindar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8), 25-83.

32) 배정훈, 『대예언서』 (서울: 장로교 출판사, 2006), 91-93.

약성서 후반기에서부터 전승사적인 궤적을 가지고 있다. 신구약 중간사 시대부터 계시의 내용으로서의 모세의 토라와 계시의 형식으로 새 계시의 논쟁이 시작되었고, 결국은 토라의 내용을 강조하는 랍비 유대교와, 승천전승을 통한 새 계시를 강조하는 기독교가 탄생되었다. 기독교는 구약성서의 연속성을 넘어서서 스스로를 새로운 계시의 담지자로 이해한다. 신약성서는 일차적으로 구약성서의 성취라는 형식을 견지하면서도, 구약성서의 성취로 여겨지는 사건을 구약성서를 넘어서는 새 계시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신약성서가 새 계시로 여기는 사건의 해석을 위해 과감하게 구약의 문맥을 뛰어넘는다. 이제 새 계시의 절정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은 구약성서의 권위를 넘어서 오히려 구약성서를 해석하는 권위를 갖게 된다. 신약성서 저자가 인용한 구약성서의 저자가 처음부터 신약성서의 문맥을 예상한다기보다는 허용한다고 말할 수 있다. 오히려 주도권은 신약성서의 저자에게 있다. 신약성서의 저자는 구약성서에서 드러나지 않은 새 계시를 서술하면서 그것을 구약성서의 성취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신약성서에서 구약성서의 성취라는 형식은 구약성서의 문자적인 의미나 문맥을 뛰어넘는 자유가 허락된 성취라고 보아야 한다. 구약성서의 본문이 신약성서의 해석을 통하여 드러내는 해석은 구약성서의 저자가 의도하지 않은 것을 포함하며, 신약성서의 저자에 의하여 해석된 새 계시가 포함되고, 기독교는 신약성서와 구약성서가 이루는 새로운 정경적인 계시를 갖게 된다. 즉, 역사적으로는 구약성서의 의미와 신약성서의 의미가 불연속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정경적으로는 구약성서에서 감추인 계시가 신약성서에서 드러남으로 구약성서와 신약성서가 이루는 정경적인 계시를 말할 수 있다. 이 정경적인 계시를 우리는 구약성서의 충만한 의미(sensus plenior)라고 볼 수 있다.³³⁾ 이는 구약성서 기자가 깨닫지 못했지만 신약성서 기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신약성서의 해석은 구약성서의 권위에서 출

33) Jonathan Lunde, "An Introduction to Central Questions in the New Testament Use of the Old Testament," in Kenneth Berding, eds, *Three Views on the New Testament Use of the Old Testament*, 32-35.

발하지만, 이 권위를 뛰어넘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의 빛 아래에서 해석하면서 구약성서의 권위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중심을 이루는 신약성서의 권위 아래 두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구약성서 해석을 보편적인 구약해석의 모델로 볼 수는 없다. 구약성서의 성취로서의 신약성서는 구약성서를 역사적이고 문법적으로 주석학적인 모델을 따라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주로 신약성서에 나타나는 일회적인 계시에 대한 서술로서 주석학적인 모델을 벗어날 때가 많다. 그러므로 신약성서에 나타난 구약성서 인용의 방법은 보편적인 주석적 모델이 될 수는 없다.³⁴⁾

2) 다니엘서와 신약성서

신약성서에 나타난 다니엘서 연구에서는 두 가지 요소가 긴장을 이루고 있다.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진 대표적인 학자들은 비엘(G. K. Beale)과 모이이스(Steve Moyise)이다. 비엘은 요한계시록에서 구약 예언의 성취를 강조한다면, 모이이스는 신약성서 저자가 성취되었다고 강조하는 신약성서의 문맥을 더 강조한다. 비엘(G. K. Beale)은 요한계시록을 다니엘서의 미드라쉬로 보고, 신약성서의 문맥보다는 다니엘의 예언 성취를 더 중요하게 여겼다. 비엘은 요한계시록의 저자가 독자들을 위하여 다니엘서를 해석하고, 다니엘의 예언이 신약성서 시대에 성취되어 가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하여 구약성서가 놓이는 신약성서의 문맥보다는 구약성서를 더 결정적으로 보고 있다.³⁵⁾ 모이이스(Steve Moyise)는 본문상호 교차이론(intertextuality)과 독자반응비평(reader-response criticism) 이론에 힘입어 구약성서의 본문이 어떻게 신약성서의 문맥과 상호 작용했는가를 강조한다.³⁶⁾ 피오렌자(E. Schüssler Fiorenza)

34) 위의 책, Richard Longenecker, *Biblical Exegesis in the Apostolic Period*, 219.

35) G. K. Beale, *The Use of Daniel in Jewish Apocalyptic Literature and in the Revelation of St. John* (New York: University Press of America, 1984); *idem*, *John's Use of the Old Testament in Revelation* (JSNTS 166; Sheffield: Sheffield Press, 1998).

36) Steve Moyise, *The Old Testament in the Book of Revelation*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5), *idem*, *The Old Testament in the New: An Introduction* (London: Bloomsbury, 2015).

에 따르면, 요한계시록의 저자의 작업은 권위 있는 성서로 여긴 구약성서의 주석이 아니며, 요한계시록의 저자가 받은 계시의 중심에는 교회의 역사적-신학적 정황이 있다.³⁷⁾ 두 입장들은(비엘이나, 모이이스와 피오렌자) 모두 중요한 요소를 각각 강조하고 있다. 형식적으로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다니엘서의 예언에 따라 종말이 성취될 것을 믿었다. 비록 종말의 실현이 문자적으로 완벽히 일치하지 않거나 문맥적인 불일치가 있다 할지라도, 요한계시록의 저자가 그 불일치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서의 성취로 해석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다른 한편으로 요한계시록의 저자가 서술하는 종말의 내용이 다니엘서에서 서술하는 종말의 내용을 넘어선다.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다니엘서에서의 종말 예언과 실제로 자신이 예언하는 종말의 성취가 차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언이 성취되고 있다는 형식을 고수하고 있다. 요한계시록의 저자가 기다린 종말의 기준은 다니엘서의 종말이다. 즉,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종말이 근거 없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런데 신약성서에 기록된 종말의 성취는 실제로 다니엘서에서 나타나지 않은 내용들을 포함한다. 이것은 단지 다니엘서에서 나타난 종말의 성취 정도가 아니라 종말에 관한 새 계시로 여겨질 정도이다. 특히나 복음서에서 종말을 다니엘의 예언의 성취로 이해하지만, 요한계시록에서는 종말에 관한 새 계시로서의 내용이 더 발전된다.

(1) 다니엘서와 신약성서의 종말

다니엘서는³⁸⁾ 안티오쿠스 4세의 박해라는 역사적인 위기 가운데 쓰인 책이

37) E. Schüssler Fiorenza, *The Book of Revelation: Justice and Judgment* (Minneapolis: Fortress, 1998), 135.

38) 구약성서에서 유일한 묵시문학인 다니엘서의 1-6장에서 실제로 이방제국에서 사는 디아스포라의 역사적인 포로 상황을 다루었다면, 7-12장에서는 백성들이 포로에서 팔레스티인으로 돌아오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이방 제국의 지배를 받는 상황의 자신들을 포로로 해석한다. 안티오쿠스 4세 치하에서 팔레스티에 살고 있는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기 가운데 종말을 기다리면서 신앙을 지키고 토라를 지켰던 디아스포라의 이야기를 안티오쿠스 4세의 운명과 자신들의 운명을 보여주는 예언으로 읽고, 안티오쿠스 4세의 종말과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을 기다렸다.

지만,³⁹⁾ 그리스의 멸망에도 불구하고 공동체에 의하여 새롭게 해석된다. 공동체는 그리스의 멸망 이후에 로마제국이 들어서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서기 전에 임하는 나라를 로마로 이해한다.⁴⁰⁾ 이는 다니엘서를 넘어서는, 또는 다니엘서의 저자가 의도하지 않은 새로운 계시이다. 유대인 역사학자인 요세푸스는 넷째 나라를 로마로 해석하였다.⁴¹⁾ 제4에스라서에서도 네 번째 나라를 로마로 이해한다.⁴²⁾ 전통적인 유대교에서도 마지막 나라를 로마로 이해한다.⁴³⁾ 요한계시록에서는 다니엘서 7장을 변형하여 바다로부터 나오는 짐승을 로마로 이해한다(계 13:1-10). 신약성서가 다니엘서의 권위에서 출발하여 새로운 계시로서의 종말을 받아들이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다니엘서의 저자에게는 당대에 끝날 위기의 종말과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고 마지막에 올 역사의 종말이 구분되지 않았다. 그러나 종말의 위기에 직면한 신약성서의 기자들은 다니엘서에서 역사의 종말을 가리키는 언어를 분리해내고 이것이 아직 성취되지 않았고 자신들의 시대에 성취 될 새 계시로 여겼다. 다니엘서에서 그리스 시대의 위기를 넘어서서 역사의 종말을 가리키는 표현들은 다음과 같다. 7장에서 네 짐승들로 표현된 네 나라(단 7:2-7), 마지막 왕국을 상징하는 짐승의 멸망(단 7:11), 인자와 하나님의 나라(단 7:13-14),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의 핍박(단 7:25), 핍박의 남은 기간으로서 한 때 두 때 반 때(단 7:25) 등이 역사의 종말

39)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에 동의한다. 최종 본문은 바벨론 시기나 페르시아 시기보다는 안티오쿠스의 핍박이 절정인 기원전 168-165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여긴다. Daniel J. Harrington, *The Maccabean Revolt: Anatomy of a Biblical Revolution* (Wilmington, Delaware: Michael Glazier, 1988), 17. J. A. Montgomery, *Daniel* (ICC; New York: Edinburgh, 1927), 59.

40) 메대와 바사를 두 나라로 보거나 한 나라로 볼 수 있는 본문의 읽기 가능성 가운데 한 나라로 읽기를 선택함으로써 네 나라들 중에 마지막 나라인 넷째 나라를 그리스가 아니라 로마로 이해한다. 메대를 독립된 나라로 볼 경우에는 넷째 나라가 그리스가 되고, 메대와 페르시아를 한 나라로 볼 경우 넷째 나라가 로마가 된다. 다니엘서는 두 가지를 모두 말하고 있다. 한편으로 메대 나라는 바벨론 나라와 바사 나라 사이에 존재하는 나라로 이해된다(5:31; 9:1; 6:28; 10:1; 11:1, 2). 다른 한편으로 메대 나라와 바사 나라는 한 나라처럼 묘사된다(5:28; 6:8, 12, 15; 8:20).

41) 요세푸스, 『유대고대사 II』 (서울: 성서연구원/하바드 대학 출판부, 1992), 10권, 208-210.

42) “네가 본바 바다로부터 오는 독수리는 네 형제 다니엘에게 보여준 환상에 나오는 넷째 왕국이다.” (제 4에스라 12:11). J. H. Charlesworth ed. *The Old Testament Pseudepigraphy* (New York: Doubleday, 1983), 550.

43) R. Anderson, *Signs and Wonders* (Grand Rapids, MI: Eerdmann, 1984), 21.

을 상징하게 되었다. 9장에서는 역사의 마지막 위기를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때”(단 9:27)라는 표현이 역사의 종말과 관련 있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다니엘서 11장에서 안티오쿠스의 죽음(단 11:40-45) 이후에 찾아오는 환란과 종말 예언(단 12:1-3)도 역사의 종말을 가리키는 상징으로 해석된다.⁴⁴⁾ 복음서 기자들은 다니엘서에 담긴 이러한 표현들이 자신들의 시대에 맞이할 역사의 종말이라고 믿으며 신약성서에서 새 계시를 드러낼 때 다니엘서의 언어를 사용하였다. 종말이 임박했다는 징조는 다니엘이 말한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설 때이다(마 24:15; 단 9:27). 종말에 있을 전쟁은 역사 이래 다시없는 큰 환란을 동반하며(단 12:1; 마 24:21), 이 멸망에 대한 예언은 우주의 종말과 함께 선포된다(마 24:29-31). 또한 종말은 인자의 등장과 함께 이루어진다(마 24:30-31; 26:64).

(2)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은 다니엘서의 종말의 권위에 기초하여 종말에 관한 환상을 서술하는데, 이것이 다니엘의 종말을 넘어서는 새 계시가 된다. 요한계시록에서 종말에 관한 계시를 위하여 사용한 다니엘서의 인용 또는 언급은 다음과 같다: 느부갓네살 왕의 통치와 관련된 언급된 다니엘서 2-4 장(단 2:28, 29, 35, 45; 3:6; 4:30, 34), 짐승 또는 인자같은 이에 대한 묘사(단 7:3, 6, 7, 8, 9, 10, 13, 21, 22, 25, 26), 해석자인 천사(10:5, 6, 9; 12:1, 4, 7, 9), 기타(단 5:23; 8:10).⁴⁵⁾ 이제 요한계시록에 드러난 종말에 관한 새 계시를 살펴보기로 하자.

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요한계시록은 다른 신약성서와 마찬가지로 구약성서에서 계시된 그리스도가 역사적인 예수 안에서 실현된 것으로 이해한다. 다니엘서에서 하나님-

44) 배정훈, 『다니엘』(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16), 224.

45) Steve Moyise, *The Old Testament in the Book of Revelation*, 45.

인자의 관계는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예수의 관계로 적극적으로 표현된다. 다니엘서 7장 13-14절에서 인자의 등장에 관한 표현은 다양하다. 히브리 성경에서는 “하늘의 구름과 함께”(im-‘ānānê šamayyā)로 인간이 신격화되는 것을 강조하고, 칠십인역에서는 “하늘의 구름 위에”(ἐπὶ τῶν νεφελῶν τοῦ οὐρανοῦ)로서 하늘의 구름 위에 등장하는 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적인 존재임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러나 신약성서에서 이 표현들이 구분 없이 사용되기 때문에(구름과 함께 - 막 13:26; 14:62; 계 1:7; 구름위에 - 마 24:30; 26:64; 계 14:14, 16) 구름 앞에 있는 전치사로 인한 해석의 다양성을 크게 고려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다니엘서 7장에서 인자의⁴⁶⁾ 정체에 관하여 학자들은 세 가지 견해를 제시한다. 첫째 이론은 인자를 하나님의 백성, 즉 집단적 인물(collective figure)로 보는 상징적인 해석이다.⁴⁷⁾ 이 이론의 근거는 인자같은 이가 나라를 받고(단 7:14), 꿈의 해석에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받는다(단 7:22, 27)는 서술 때문이다. 둘째 이론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천사로 해석하는 것이다(단 7:22, 27).⁴⁸⁾ 다니엘서에서 천사는 거룩한 자들이라고 불린다(8:13에서 두 번). 셋째 이론은, 인자 같은 이를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앞에 인도되어 나라를 받는 메시아로 본다. 기원후 1세기의 문헌인 에녹의 비유(the Similitude of Enoch)에 나오는 인자는 다니엘서 7장에 근거하여 메시아로 여긴다(제1에녹서 46:1-5; 48:3-7, 10; 52:4). 이 다양한 이론 중에서 기독교는 메시아적인 해석을 예수에게 적용시킨다. 복음서는 다니엘서 7장 13-14절에서 오실 자를 메시아로 해석한다(마 3:11; 8:29; 11:3; 요 1:30; 4:25). 또한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다니엘서 7장 13-14절에 근거하여 구약성서에서 예언된 메시

46) 다니엘서 7장에서 “인자같은 이”(k’bar ‘ēnāš)라는 말은 짐승같은(사자같은, 표범같은, 곰같은)이라는 단어와 대립되어, 고유명사가 아니라 관사 없는 일반명사로 사용되고 있다. 배정훈, 『다니엘』, 152.

47) Montgomery, *Daniel*, 317-24.

48) 이 이론의 대표적인 학자는 콜린스(J. J. Collins)이다. J. J. Collins, “The Son of Man and the Saints of the Most in the Book of Daniel,” *JBL* 93 (1974), 50-66. *Daniel*(1993), 304-10. L. Dequeker, “The ‘Saints of the Most High’ in Qumran and Daniel,” *OtSt* 18 (1973): 108-187.

아적인 인물이 예수 안에서 성취된 것으로 이해한다(계 1:7, 13; 14:14) 요한계시록 1장 13절과 14장 14절은 다니엘서 7장 13절의 칠십인 역과 동일하게 인자같은(ὁμοίος ἀνθρώπου)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일곱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ὁμοίον υἱὸν ἀνθρώπου)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 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며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계 1:12-16)

이 본문은 계시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 대한 서술이다. 본문에서 예수를 메시아로 여기면서 다니엘서 7장의 표현과 마찬가지로 “인자같은 이”(단 7:13)로 부른다. 동시에 “인자같은 이”를 천사의 모습(단 10:5-6), 하나님의 모습(단 7:9), 그리고 이새의 후손(사 11:4), 그리고 해같이 빛나는 자(삿 5:31)로 이해한다.⁴⁹⁾ 구약에서 메시아에 관한 예언은 예수 안에서 성취되고, 예수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위를 가지고 교회에 관한 말씀과 종말에 관한 계시를 선포하신다.

②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보좌환상

요한계시록 4-5장과 7장에는 보좌환상이 나타난다. 보좌는 복수 형태로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가 있다. 요한은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하늘의 보좌에 올라가(계 4:1), 보좌에 앉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현현과 천사들의 모습(계 4:2-5:5:14), 그리고 인을 뱀으로 심판을 선포하시는 어린 양

49) G. K. Beale, *The Use of Daniel in Jewish Apocalyptic Literature and in the Revelation of St. John*, 156-157.

(계 6:1-17),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계 7:1-17) 등장한다. 이 보좌 환상은 요한계시록에서 처음으로 받은 계시가 아니라 구약성서의 전승의 확장이다(왕상 22:19-22; 사 6:1-11; 겔 1-3 장; 단 7:9-10). 마치 구약성서의 저자들이 공감하는 보좌환상의 언어를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사실상 보좌환상은 역사적인 묵시문학인 다니엘서보다 저 세상의 여행을 담고 있는 제1에녹서와 더 가깝다. 다니엘은 하늘에 오르지 않고 보좌 환상을 목격만 하지만 사도 요한은 직접 하늘로 올라간다. 이러한 승천 전승은 에녹서에서 나타나고(제1에녹서 14장), 바울이 경험한다(고후 12:2). 하늘의 보좌 환상에서 하나님의 현현과 천사들이 서술된다. 네 생물은(겔 4:6-7) 에스겔의 환상(겔 1:4-28)과 유사하다. 네 생물이 하나님의 거룩을 찬양하는 것은(계 4:8) 이사야서에서 그룹들의 찬양과 유사하다(사 6:2-3). 보좌환상에 반드시 있는 것은 하나님이 책을 펴놓고 심판하는 것인데(단 7:10), 이 장면은 요한계시록 20장에 나타난다. 심판을 행하는 보좌가 복수(계 20:4; 단 7:9) 또는 단수(계 20:11; 단 7:9)로 묘사된다. 책이 펴 있고(계 20:12; 단 7:10), 성도들이 왕 노릇 할 것을 예언한다(계 20:4, 6; 단 9:27). 보좌에 앉으신 이는 일곱 인으로 봉한 두루마리를 어린 양이 떼게 한다(5-6장). 7장에서는 심판 이후에 구원받은 인침 받은 백성들을 묘사하고 있다.⁵⁰⁾ 결론적으로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구약성서의 보좌전승의 문맥 안에서 구약성서의 권위아래 서술하되, 다니엘서에서 드러나지 않은 새 계시인 예수 그리스도가 인자요 어린 양으로서 구원자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계시를 서술하고 있다.

③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당대의 핍박 받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다니엘서 7장을 인용한다. 다니엘서가 기원전 2세기 안티오쿠스 4세의 핍박 아래 있는 유대 백성들에게 전한 메시지가 다시금 요한계시록의 저자에 의하여 다시금 취해진 이유는 무엇일까? 다니엘서 7장에는 당대의 위기와 함께 역사의

50) Steve Moyise, *The Old Testament in the Book of Revelation*, 51-54.

종말이 올 것이라고 믿었지만 안티오쿠스의 죽음 이외에 종말에 관한 예언은 연기되었다. 다니엘서 7장에서 요한계시록의 종말 이해에 영향을 미친 요소는 세 가지이다: 하나님의 심판, 짐승으로 표현된 이방 나라의 종언, 그리고 백성들을 향한 짐승의 핍박의 끝과 인자에 의한 통치.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다니엘서의 상징을 사용하면서 당대의 악의 세력에 대하여 묘사한다.

인자는 구름을 타고 오는 존재이다(계 1:7; 단 7:13). 인자는 하나님의 현현과 유사하다(계 1:14; 단 7:9). 이방인들이 거룩한 성을 짓밟을 기간은 마흔 두 달이다(마흔 두달, 계 11:2; 천이백육십일, 11:3; 세 때 반, 단 7:25; 단 12:7, 이천 삼백 주야, 단 8:13).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죽일 것이다(계 11:7, 단 7:3, 21). 13장에서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로마로 이해하고 다니엘의 표현을 사용하여 짐승을 서술한다.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왔다(계 13:1; 단 7:3). 짐승은 열 개의 뿔과 일곱 개의 머리가 있다(계 13:1; 단 7:20). 짐승의 모양은 표범, 곰의 발, 사자의 입과 같다(계 13:2; 단 7:4-6). 다니엘서 7장에서는 네 짐승의 연속성을 강조하였다면, 계시록은 모든 제국들이 하나님을 대항한다는 면에서 하나임을 강조한다.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한다(계 12:5-6; 단 7:8, 11). 짐승이 성도들과 싸우며 잠시 동안 이긴다(계 12:7; 단 7:21). 계시록 17장에 들어서면 열 뿔을 열왕으로 해석하며, 짐승은 백성들이 아니라 어린 양과 싸우며, 어린 양의 승리를 예견한다(계 17:12-14).⁵¹⁾ 비록 다니엘서의 용어를 사용하지만 서술되고 있는 것은 위기에 직면한 요한계시록의 독자들의 역사적인 상황이다. 다니엘이 예언한 종말이 성취되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예수의 초림과 재림의 언어로 바뀌었다. 다니엘의 예언의 권위는 존재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종말이 성취되는 새 계시로 바뀌었다. 구약성서의 권위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새 계시의 긴장이 존재하고 있다.

51) 위의 책.

(3) 결론

요한계시록은 다른 구약성서와 마찬가지로 다니엘서를 일정한 원칙에 따라 사용하고 있다.

① 신약성서는 다니엘서의 종말에 관한 계시에 기초하여 종말을 기다렸지만, 실제로 경험한 종말은 다니엘서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새로운 계시였다. 새로운 계시의 전제는 구약성서에서 기다리던 메시아가 예수 안에서 실현되었다는 이해이다. 구약성서에서 하나님-인자의 관계는 하나님-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로 표현된다.

② 기독교 공동체는 구약성서와 신약성서의 관계를 신 중심(theo-centric) 사고로 이해한다. 하나님이 구약성서에서 세상을 다스리시던 방식은 여전히 신약성서에서 유효하다. 그러나 구약성서에서 드러나지 않은 새로운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롭게 드러나는 가능성을 열어 놓는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사의 연속성이라는 측면에서 구약성서는 신약성서의 계시의 기준이 되지만, 신약성서의 계시가 구약성서의 계시를 뛰어넘는 새 계시가 됨으로 구약성서와는 불연속적인 특징을 보여준다.

③ 구약성서의 종말은 세상 나라의 종언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됨으로 이루어진다고 표현되었다. 신약성서의 종말은 종말의 실현으로서 초림하신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이루어지기에 구약성서에서 종말로 여겨지는 모든 상징은 다시금 예수의 재림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신약성서는 구약성서의 권위에 근거하여 구약성서에서 예언한 종말을 기다렸지만, 그들이 고백하고 서술하는 종말의 계시는 다니엘서가 드러내지 않은 새 계시의 형태로 요한계시록에 나타난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에 근거한 요한계시록의 종말론이 다니엘서의 종말론을 확장하여 정경적인 종말론이 되고 이것이 교회를 위한 정경적인 계시가 되었다.

5. 결론

이 글은 구약성서와 신약성서의 관계를 밝히려는 연구이다. 구약성서와 신약성서의 관계를 연구하는 방법들은 구약성서와 신약성서의 통일성을 전제하지 않는 방법과 통일성을 전제하는 방법이 있다. 먼저 랍비 유대교와 기독교는 같은 구약성서를 경전으로 가지고 있지만, 구약성서에 대한 서로 다른 해석을 기초로 이루어진 서로 다른 종교이므로 에큐메니칼 차원에서 구약성서(또는 히브리 성서)를 전제 없이 연구하는 방법이 가능하다. 기독교로 하여금 자신의 정체성의 일부인 유대교 율법주의의 존재를 거부하는 바울에 관한 새 관점에 저항하고, 기독교는 자기 정체성의 전제 아래 랍비 유대교와의 대화에 임해야 할 것이다. 구약성서와 신약성서의 통일성을 전제하면서 구약성서와 신약성서의 관계를 연구하는 성서적인 해법은 구약성서의 독립성을 인정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일어난 사건의 빛 아래 구약성서를 해석하는 것이다. 교회사에서 구약성서와 신약성서의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모두 나타난다. 신약성서는 자신을 구약성서의 성취로 이해하고 유대성(Jewishness)을 신약성서의 중요한 뿌리로 이해하면서, 구약성서와 신약성서를 분리하려는 마르시온주의를 극복하면서 구약성서와의 연속성을 강조한다. 동시에 기독교는 구약성서로부터 유래한 유대교종의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유대교와 차별화하고 특별히 유대교 율법주의와의 투쟁을 자기 정체성으로 삼으면서, 신약성서와 구약성서의 불연속성을 강조한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다니엘서를 연구한 결과 요한계시록에서 구약성서의 권위와 새 계시의 성취가 긴장을 이루고 있는바, 다니엘의 종말 예언을 따라 종말이 당대에 성취된다는 이해와 종말이 다니엘서에서 예언한 내용을 넘어서는 새 계시의 형태로 나타난 종말의 내용이 긴장을 이룬다.

6. 참고문헌

- 강성열, “한국의 구약학: 아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구약논단』 제 23권 1호 (2017. 3. 31), 104-138.
- 박정수, 『고대 유대교의 터무늬: 신구약 중간사와 기독교의 기원 탐구』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8).
- 배정훈, 『다니엘』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16).
- , “승천전승(Heavenly Ascent)의 기원과 발전”, 『장신논단』 제24집 (2005), 55-78.
- , “유대교 율법주의 연구를 통한 바울에 관한 새 관점의 비판적 이해”, 『장신논단』 제49권(2017), 147-171.
- , 『대예언서』 (서울: 장로교 출판사, 2006).
- 우택주, “해석과 해석의 힘: 종교개혁의 구호성서만으로도”에 대한 성찰”, 『구약논단』 제 24권 2호 (2018. 6. 30), 144-171.
- 이경숙, “구약성서와 신약성서의 연속과 단절: 기독교와 유대교의 문화적 소통을 위하여”, 『구약논단』 제 15권 1호 (2009, 3, 31), 155-173.
- 코헨, 샤이 J. D., 황승일 역, 『고대 유대교 역사』 (서울: 은성, 1994).
- 크니립, R., 강성열 역, 『구약 신학의 과제』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01).
- 파인버그, 존 S., 『연속성과 불연속성: 신구약성서의 관계』 (대전: 성서침례대학원대학교출판부, 2016).
- Baker, D. L., *Two Testaments One Bible: The Theological relationship between the Old and New Testaments* (Downers Grove, Ill. : Apollos/IVP Academic, 2010).
- Barr, James, *Old and New Interpretation: A study of the Two Testaments* (London, 1966).
- Beale, G. K., *John's Use of the Old Testament in Revelation* (JSNTS 166; Sheffield: Sheffield Press, 1998).

- Beale, G. K., *The Use of Daniel in Jewish Apocalyptic Literature and in the Revelation of St. John* (New York: University Press of America, 1984).
- Berding, Kenneth eds, *New Testament Use of the Old Testament* (Grand Rapids: Zondervan, 2008).
- Brueggemann, W., *Theology of the Old Testament: Testimony, Dispute, Advocacy*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7).
- Bultman, Rudolf, "Significance of the Old Testament for the Christian Faith," *The Old Testament and the Christian Faith*, ed. Bernhard W. Anderson (New York: Harper & Row, 1963), 8-35.
- Carson, A. and Williamson, H. G. M., *It is Written: Scripture Citing Scripture: Essays in Honor of Barnabas Lindar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8).
- Fiorenza, E. Schüssler. *The Book of Revelation: Justice and Judgment* (Minneapolis: Fortress, 1998).
- Goppelt, Leonhard, *Typos: The Typological Interpretation of the Old Testament in the New* (Eugene, Oregon: Wipf and Stock Publishers, 1982).
- , "The Old Testament: A Heresy Continued?" *Word & World* 8 no 2 Spr (1988), 150-157.
- Hagner, Donald. "How 'New' is the New Testament?: Continuity and Discontinuity Between the Old Testament (Formative Judaism) and the New Testament (Early Christianity)." *AJPS* 19,23 (2016), 99-107.
- Harrelson, Walte, "How to Interpret the Old Testament: The Central Issue between Christians and Jews," *Review and Expositor* 103 (2006), 25-44.
- Levenson, Jon D., *The Hebrew Bible, the Old Testament, and Historical Criticism: Jews and Christians in Biblical Studies* (Louisville, KY: West-

- minster/John Knox Press, 1993).
- Longencker, Richard, *Biblical Exegesis in the Apostolic Period* (Grand Rapids: Eerdmans, 1975).
- Lunde, Jonathan. "An Introduction to Central Questions in the New Testament Use of the Old Testament," in Kenneth Berding, eds, *Three Views on the New Testament Use of the Old Testament* (Grand Rapids: Zondervan, 2008), 32-35.
- Montgomery, J. A., *Daniel* (ICC; New York: Edinburgh, 1927).
- Moyise, Steve, *The Old Testament in the New: An Introduction* (London: Bloomsbury, 2015).
- , *The Old Testament in the Book of Revelation*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5).
- Pentiuc, Eugen J., "Between Hebrew Bible and Old Testament Synchronic and Diachronic Modes of Interpretation," *St. Vladimir's Theological Quarterly* 50:4 (2006), 381-96.
- Schiffman, Lawrence H., *From Text to Tradition: A History of Second Temple & Rabbinic Judaism* (Hoboken, New Jersey: Ktav Publishing House, 1991).
- Wright, N. T., *The Climax of the Covenant: Christ and the Law in Pauline Theology* (Minneapolis: Fortress, 1991).

검색어

신약과 구약의 관계

랍비 유대교와 기독교

바울에 관한 새 관점

유대성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다니엘서

The Relation Between the Old Testament and the New: Focused on the Book of Daniel Cited in the Book of Revelation

Chong-Hun Pae, Ph.D.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Theology
Presbyterian University and Theological Seminary

This study explores the relation between the Old Testament and the New. Rabbinic Judaism and Christianity came to be different religions, based on different interpretations of the Old Testament (or the Hebrew Bible). Christianity interprets the Old Testament on the presupposition of the unity between the Old Testament and the New. Unlike New Perspectives on Paul, Christianity has been formed with its struggle against Jewish legalism. Christianity, without abandoning its identity, should have its dialogue with Rabbinic Judaism. There are three methods in the study on the relation between the Old Testament and the New: the Old Testament solution, the New Testament solution, and the Biblical solution. The Biblical solution, based on the unity between the Old Testament and the New, interprets the Old Testament in light of the event of Jesus Christ.

There are both continuity and discontinuity between the Old Testament and the New.

www.kci.go.kr

Understanding itself as the fulfillment of the Old Testament, the New Testament regards Jewishness as its crucial root. Furthermore, the New Testament focuses on its continuity with the Old Testament, overcoming any attempts of the Marcionism to separate itself from the Old Testament. Even though Christianity came from the Old Testament, it differentiates itself from other sects coming from different interpretations of the Old Testament.

Examining the Book of Daniel cited in the Book of Revelation, there is a tension between the authority of the Old Testament and the new revelation in the New Testament. The Book of Revelation proclaims that the end is coming according to the fulfillment of Daniel's prophecy. However, in fact, the description of the end in the Book of Revelation is beyond Daniel's prophecy, since the new prophecy is revealed in light of Jesus Christ. Namely, the fulfillment of Daniel's prophecy is in tension with the new revelation based on Jesus Christ.

Keywords

the Relation Between the Old Testament and the New

Rabbinic Judaism and Christianity

New Perspectives on Paul

Jewishness

the Book of Daniel in the Book of Revelation

- 투고일: 2018년 9월 27일
- 심사일: 2018년 10월 16일
- 게재 확정일: 2018년 11월 10일

www.kci.go.kr